

2013. 5. 19

## 예산군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연구수행 : 홍성호

현안과제연구  
2013. 5. 19

## 예산군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홍성호(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 례>

1. 연구의 취지 및 설문조사의 개요 .....	1
1) 연구의 취지 .....	1
2) 설문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 일반현황 .....	1
2. 근로자 정주여건 .....	3
1) 생활유형 .....	3
2) 주거시설 .....	6
3) 생활편의시설 .....	11
4) 문화체육시설 .....	13
5) 교통시설 .....	15

## 1. 연구의 취지 및 설문조사의 개요

### 1) 연구의 취지

○ 본 연구는 산업단지가 기존의 생산기능과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이 연계된 우수한 정주환경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종사자들이 근무지역에 정착하여 소득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책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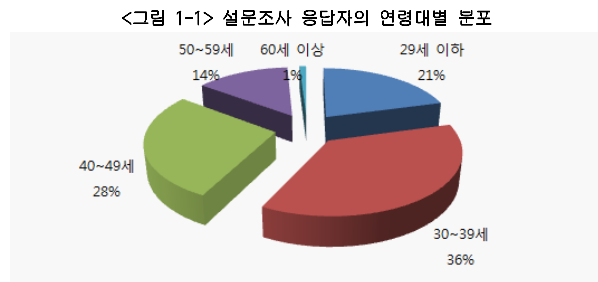
- 생활유형과 지역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주거에 대한 현황과 수요 및 만족도
-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
- 문화체육시설 이용현황과 수요 및 만족도
- 교통분야 개선사항 및 만족도

### 2) 설문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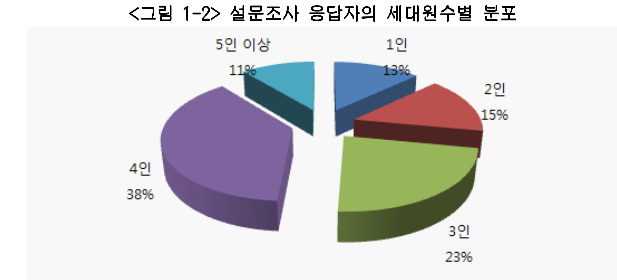
○ 설문조사는 2013년 5월초에 예산군 농공단지 근로자 총 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이 58.4%
-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20.8%, 30대 36.6%, 40대 27.7%, 50대 13.9%, 60세 이상 1.0%



- 응답자의 세대원수별 분포를 보면, 4인의 경우가 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인(23%), 2인(15%), 1인(13%), 5인 이상(1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응답자 가운데 도내 거주자의 비율은 92.4%이며,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는 경기도(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충북(진천군), 경북(경주시),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음
- 도내 거주 근로자 가운데 예산군 내 거주 비율은 74.0%로 조사됨
- 상시고용 기준 고용규모에 따른 분포는 50인 미만 41.3%, 50인 이상 200인 미만 32.0%, 200인 이상 26.7%에 해당함

○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운데 이들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은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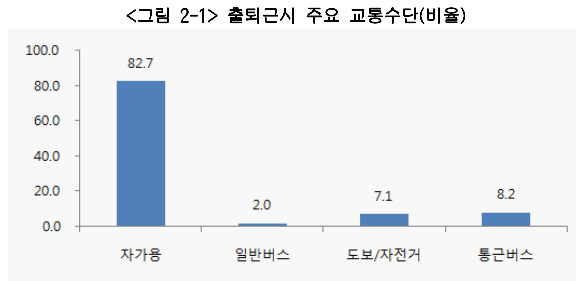
○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의 비율은 77.2%에 이릅니다

- 이들이 제공하는 주거시설의 형태별 분포는 아파트 52.6%, 기숙사 46.2%, 단독주택 1.3%로 나타남
-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의 비율은 해당 업체의 고용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50인 미만의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 가운데 71.0%,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 91.7%, 200인 이상의 경우 100.0%의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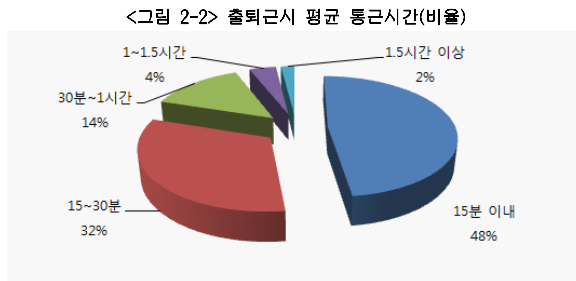
## 2. 근로자 정주여건

### 1) 생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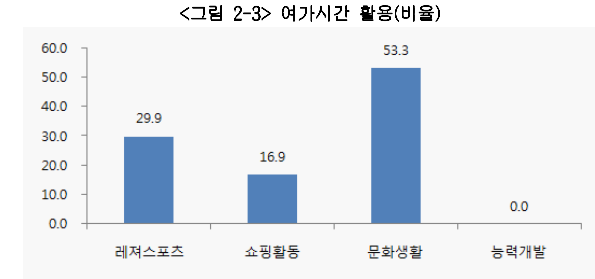
- 예산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유형을 살펴보면, 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통근버스(8.2%), 도보/자전거(7.1%), 일반버스(2.0%)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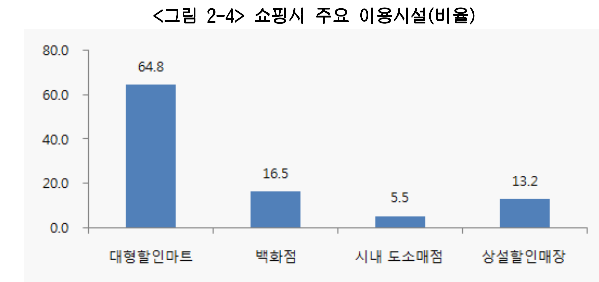
- 출퇴근시 평균 통근시간은 '15분 이내'가 4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5~30분'(32.0%), '30분~1시간'(14.0%), '1~1.5시간'(4.0%), '1.5시간 이상'(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80.0%에 이르는 높은 비율의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함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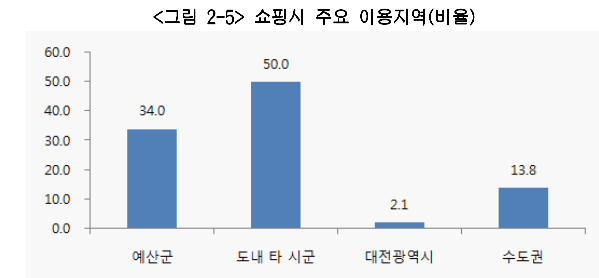
- 여가시간의 활용으로 과반수(53.3%) 이상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레저스포츠(29.9%)와 쇼핑활동(16.9%)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쇼핑을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대형할인마트(64.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다음은 백화점(16.5%), 상설할인매장(13.2%), 시내 도소매점(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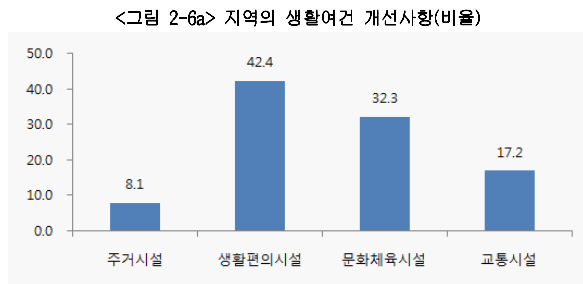


- 쇼핑은 도내 타 시도(50.0%), 예산군(34.0%), 수도권(13.8%), 대전광역시(2.1%)의 순으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쇼핑이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뤄짐으로 인해 예산군 이외 지역에서의 쇼핑의 비율이 높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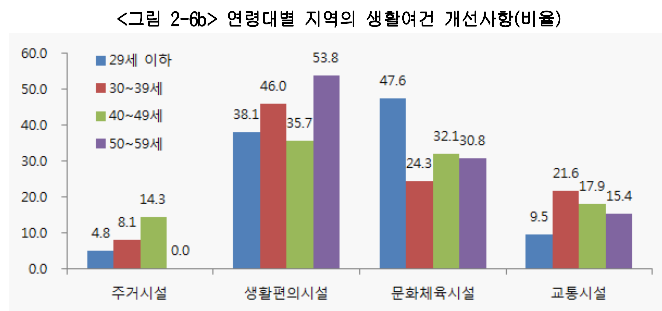


- 예산군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쇼핑하는 근로자의 쇼핑을 위한 이용시설분포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 67.2%, 백화점 24.6%, 시내 도소매점 1.6%, 상설할인매장 6.6%로 예산군에서 주로 쇼핑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16.5%에서 24.6%로)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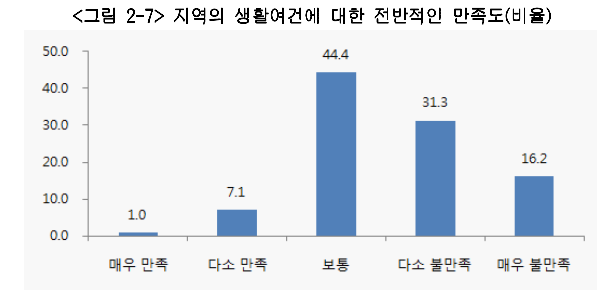
- 지역의 생활여건 가운데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생활편의시설(42.4%), 문화체육시설(32.3%), 교통시설(17.2%), 주거시설(8.1%)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사항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40대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고, 생활편의시설은 50대 근로자, 문화체육시설은 29세 이하 근로자, 교통시설은 30대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달라 지역 내 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에 따라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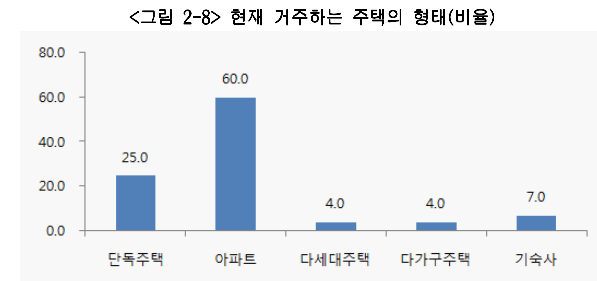
-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이 각각 1.0%와 7.1%인 반면, '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의 비율은 각각 16.2%와 31.3%로 높게 나타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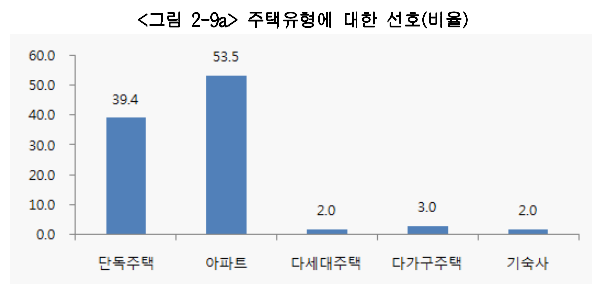
- 연령대별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의 근로자로 이들의 불만족 비율은 7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성별로는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세대원수에 따른 분포에서는 혼자 사는 경우가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주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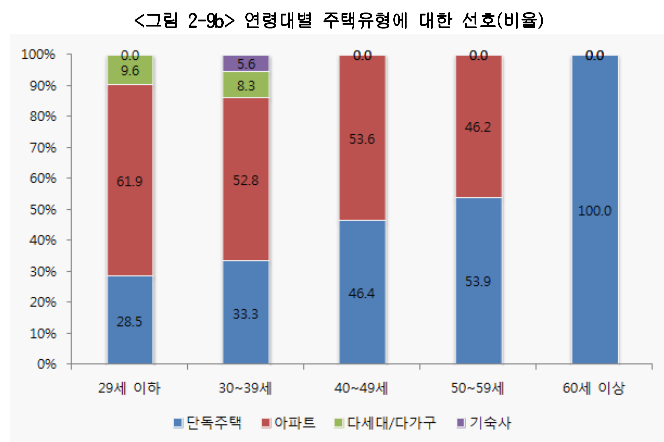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60.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25.0%, 기숙사 7.0%,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각각 4.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현재 거주하는 형태와 대체로 유사하며, 아파트가 5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단독주택이 39.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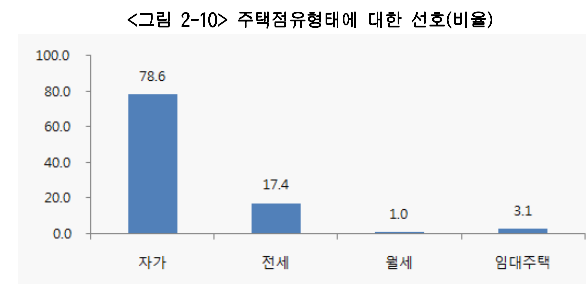


-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은 대체로 하락함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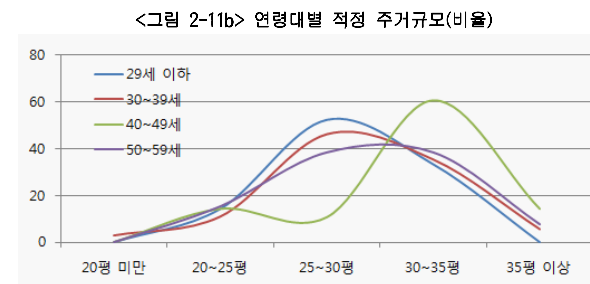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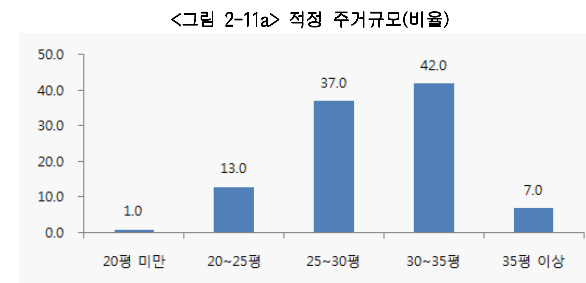


-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가 근로자의 성별 그리고 세대원수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선호는 자가의 경우 78.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전세가 그 다음으로 높은 17.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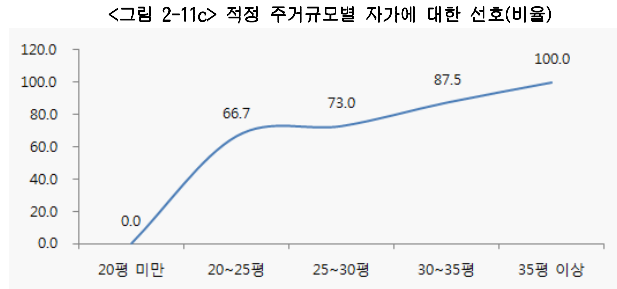


- 적정 주거규모에 대한 의견은 30~35평이 4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5~30평(37.0%), 20~25평(13.0%), 35평 이상(7.0%)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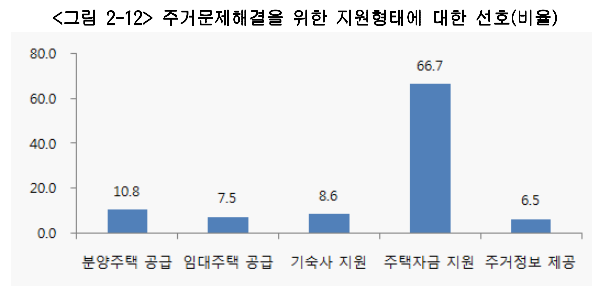
- 적정 주거규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가 차츰 보다 큰 규모의 주거를 선호하나 다시 작은 주거규모를 선호하여 생애주기별 주거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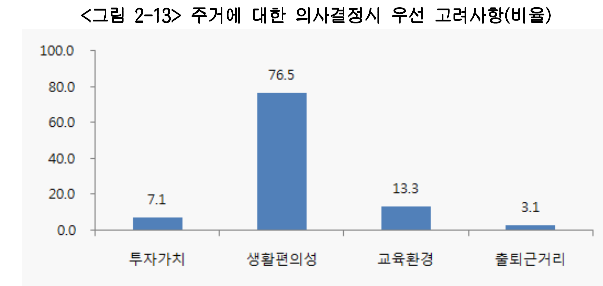


- 적정 주거규모별 자가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평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대를 선호하며, 20평 이상 25평 미만에 대해서는 자가를 원하는 비율이 66.7%로 나타나고, 25평 이상 30평 미만은 73.0%, 30평 이상 35평 미만은 87.5%, 그리고 35평 이상은 전적으로 자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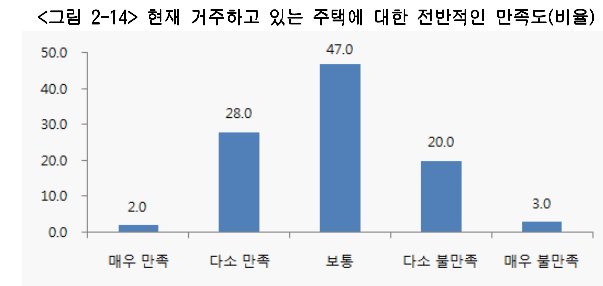
-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택자금 지원'이 66.7%로 단연 높게 나타나고, '분양주택 공급'(10.8%), '기숙사 지원'(8.6%), '임대주택 공급'(7.5%), '주거정보 제공'(6.5%)의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생활편의성'(76.5%)으로 조사되며, '교육환경'(13.3%), '투자가치'(7.1%), '출퇴근거리'(3.1%)는 상대적으로 우선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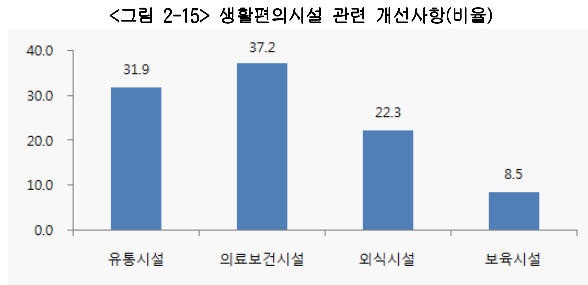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과 대체로 유사하나 전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성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불만족하는 경우의 비율이 남성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남성 근로자 가운데 불만족은 27.6%이고 만족은 24.1%인 반면에 여성 근로자는 불만족이 16.7%에 불과하며 만족이 38.1%에 달함)
- 연령대별로 불만족하는 비율은 29세 이하 33.3%, 30대 18.9%, 40대 18.5%, 50대 28.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29세 이하와 50대 연령층에서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 높음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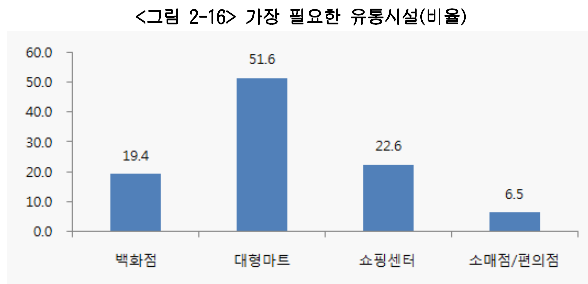
### 3) 생활편의시설

- 생활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문은 의료보건시설(37.2%)이며 이와 더불어 유통시설(31.9%)과 외식시설(22.3%)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반면 보육시설(8.5%)의 개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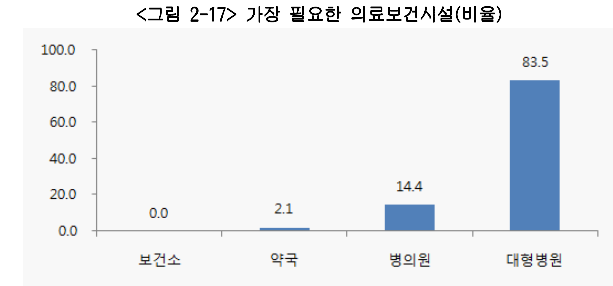


- 생활편의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외식시설의 비중이 55.6%로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에서 의료보건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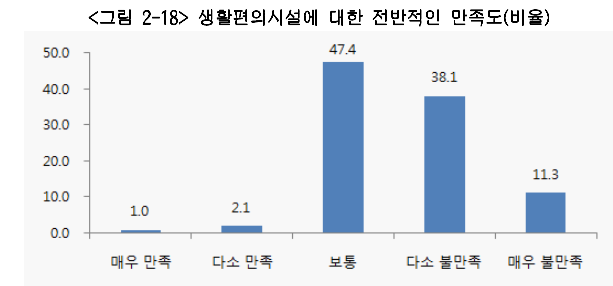
- 예산군에서 가장 필요한 유통시설은 대형마트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쇼핑센터(22.6%), 백화점(19.4%), 소매점/편의점(6.5%)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의료보건시설의 필요성은 대형병원이 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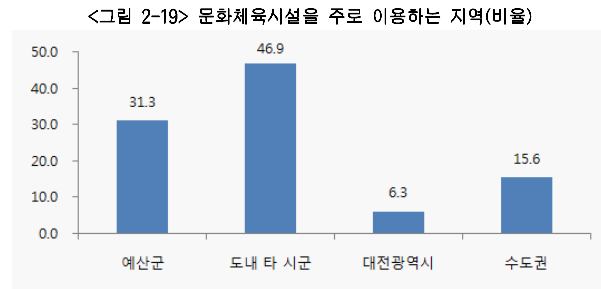
- 예산군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49.4%인 반면 만족하는 경우는 단지 3.1%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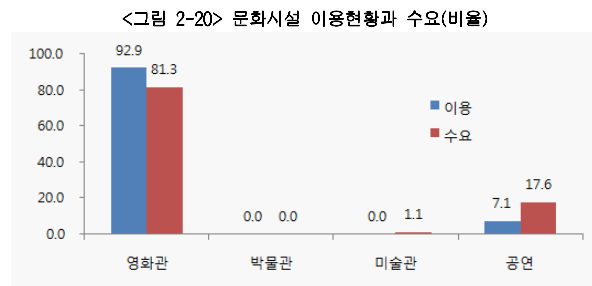
-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비율의 연령대별 분포는 29세 이하 52.4%, 30대 62.2%, 40대 44.4%, 50대 16.7%로 조사됨
- 불만족하는 비율의 세대원수별 분포는 1인 세대 53.8%, 2인 세대 84.6%, 3인 세대 27.3%, 4인 세대 43.2%, 5인 이상 세대 63.6%로 나타남
- 반면, 성별로는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남성 근로자 58.2%, 여성 근로자 51.2%)

#### 4) 문화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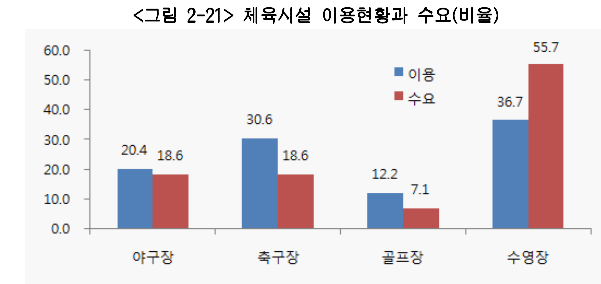
- 문화체육시설의 주된 이용이 이뤄지는 지역으로는 예산군 이외의 도내 타 시군이 46.9%로 가장 높고, 예산군이 31.3%, 수도권이 15.6%, 그리고 대전광역시 6.3%로 나타나, 예산군 이외 지역에서의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예산군 내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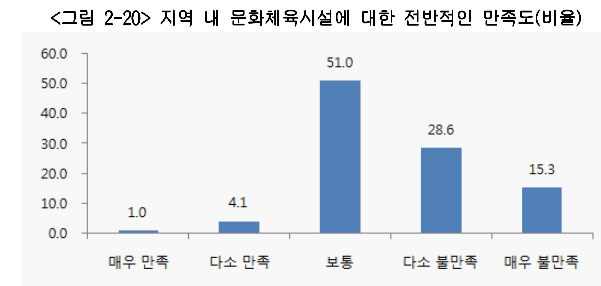
- 문화시설의 이용현황과 이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이용과 수요 모두에서 영화관의 비율(각각 92.9%와 81.3%)이 단연 높음을 볼 수 있음
- 비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연극과 같은 공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이용현황과 수요 모두에서 수영장의 비율(각각 36.7%와 55.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축구장(각각 30.6%와 18.6%)과 야구장(각각 20.4%와 18.6%), 골프장(각각 12.2%와 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예산군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1%인데 반해 불만족하는 경우는 43.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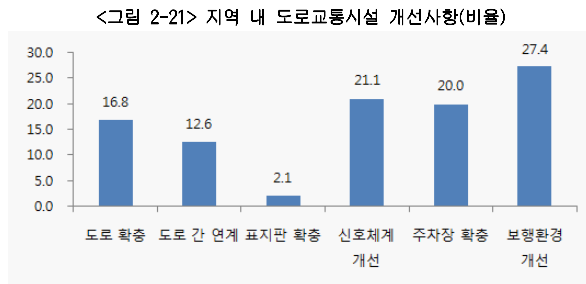


- 예산군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산군 내 관련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예산군 외 지역에서 관련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아(예산군 내 시설 이용자의 예산군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비율은 26.7%인 반면, 예산군 외 지역의 시설 이용자의 해당 비율은 51.5%), 예산군 내 문화체육시설의 상대적 열악성이 지역 내 근로자로 하여금 타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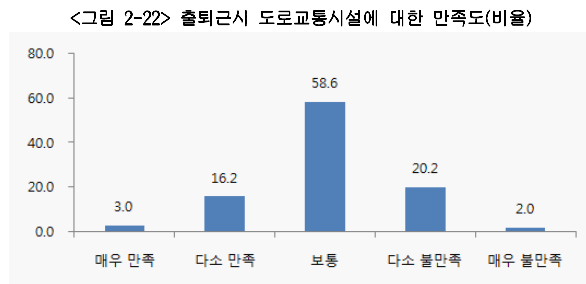


## 5) 교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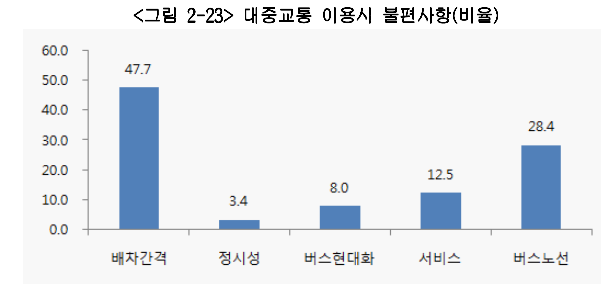
- 예산군의 도로교통시설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행환경 개선'(27.4%), '신호체계 개선'(21.1%), '주차장 확충'(20.0%), '도로 확충'(16.8%), '도로 간 연계'(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출퇴근시 도로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하는 경우가 대체로 유사하지만, 불만족하는 경우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됨



- 예산군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불편한 사항은 '배차간격'으로 이의 비율은 47.7%에 이르며, 다음은 '버스노선'(28.4%), '서비스'(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예산군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48.4%로 만족하는 경우(3.1%)에 비해 확연히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